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6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5월 1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유성투쟁 4년,
이젠 유시영 구속할 때!

검찰, 법원의 빨짓으로 허비한 4년

5월 18일이면 유성투쟁이 정확히 4년이 된다. 그러나 이 4년은 노동부, 검찰, 법원의 빨짓으로 낭비된 시간이었다. 유성기업처럼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도 정당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유시영 대표이사를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다. 노동부, 검찰은 사업주를 봐주려고 수사는 하지 않고 헛짓거리로 시간만 낭비했고, 법원은 그에 발맞춰 계속 시간을 끌어줬다. 이들의 직무유기만 아니었다면 유성투쟁은 진작에 끝났을 것이다.

편파적인 심판 두고 시합하는 셈

기본적으로 심판이 공정해야 제대로 된 시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싸움은 공정해야 할 정부가 항상 자본의 편을 들기 때문에 노동이 불리하다. 유성투쟁의 그 정도가 훨씬 심했다. 법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불법 직장폐쇄 등 판결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끝내 사업주를

기소하지 않았다. 불법 노조파괴를 자문했던 창조컨설팅은 설립 취소되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성기업의 관련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권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차라리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유성지회는 승리로 투쟁을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유시영 대표이사의 목숨을 4년 연장시켜준 것이다. 수명연장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잊지말자, 5.18! 반드시 승리한다!

자본의 노조파괴 시도는 끝이 없다. 유성기업처럼 무식하게 폭력을 동원해서 노조파괴 하던 것에서부터 지금은 비밀요원처럼 정규직으로 위장취업시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노조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유성투쟁은 자본의 노조파괴 야욕을 끝장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유시영을 반드시 구속시키자! 자본가들이 더이상 노조파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반드시 승리하자!

대법원은 정치하는 곳?

요즘 지자체들이 제정신 못차리고 허튼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엔 부강면사무소다.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이 위치하고 있는 부강면에서 최근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의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었다. 이상하게도 인근에 걸려있던 콘티넨탈지회의 현수막은 멀쩡했다.

얼마 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앞에 제원면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들이 '금속노조 결사반대' 현수막을 걸었다가 혼쫓이 난 적 있다. 자본이 지자체장, 지역 기관장들과 얼마나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보쉬전장지회 현수막 무단 철거도 비슷해 보인다. 보쉬전장자본이 부강면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몰라도 아주 돈독한 관계인가보다. 보쉬전장 자본은 그동안 노조파괴 증거자료가 나와도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고 비열하게 노조파괴를 계속해왔다. 이번엔 고작 면사무소 뒤에 숨어서 현수막을 떼고 있다.

지부는 11일 부강면사무소 규탄집회를 열고 지회들의 연대 현수막을 집단적으로 게시한다.

현수막 무단철거 규탄!

부강면사무소 규탄집회

○일시 : 5월 11일(월) 12시30분
○장소 : 부강면사무소 앞

금속노조 법률학교

○일시 : 5월 15일(금) 13시00분
○장소 :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